

## 李成桂 發願 佛舍利莊嚴具의 研究

A Study of Buddhist Reliquaries Donated by Yi Seong-gye

---

저자 (Authors)	周昺美 Joo Kyeongmi
출처 (Source)	<a href="#">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a> , 2008.3, 31-65 (35 pages) <a href="#">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Formerly Art and Archaeology)</a> , 2008.3, 31-65 (35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미술사학회</a> Art History Association Of Korea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60272">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60272</a>
APA Style	周昺美 (2008). 李成桂 發願 佛舍利莊嚴具의 研究.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31-6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5:48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李成桂發願 佛舍利莊嚴具의 研究

周 旻 美\*

- I. 머리말
- II. 14세기 후반의 정치와 불교
- III. 이성계 발원 불사리장엄구의 구성 및 양식
- IV. 이성계 발원 불사리장엄구의 의의
- V. 맺음말

## I. 머리말

유교를 숭상하는 신진사대부와 武臣들에 의해 건국된 朝鮮왕조는 국초부터 불교를 억압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까지 국교로 숭앙되었던 불교가 조선의 건국과 동시에 바로 쇠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불교계를 비롯한 舊王朝의 권세가들의 조력은 조선의 건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기존의 史書에서는 조선이라는 신왕조 건국에 있어서 고려 舊貴族 세력들과 불교계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서 이들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

\* 부경대학교 연구교수



도1 이성계 발원 불사리장엄구 일괄품,  
1390-1391년, 강원도 금강산 월출봉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왕의 초상』, p.29)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李成桂 發願 佛舍利莊嚴具는 바로 朝鮮太祖 李成桂가 고려 구세력 및 불교계와 맺고 있던 유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sup>1</sup>. 그러나 이제 까지 이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발원자와 제작연대가 알려진 중요한 고려시대 말기의 기년 명 공예품으로만 알려져 있었을 뿐이며, 전체 세트 구성 및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sup>1</sup> 이 사리장엄구 일괄품은 고려 말기 공예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의 의의보다는 새로운 왕조를 건설한 이성계의 건국 의지와 그를 지지한 고려 귀족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며, 신왕조의 조형 양식을 예고하는 공예품으로서의 의의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리장엄구 세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문이 쓰여진 硬質白磁에 대해서만 일부 연구되었을 뿐이다.<sup>2</sup> 본고에서는 각 공예품의 명문

<sup>1</sup>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관련 유물들은 일부가 『佛舍利莊嚴』 특별전(국립중앙박물관, 1991)이나 『佛舍利信仰과 莊嚴』(통도사 정보박물관, 2001) 등에서 전시되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등에서 상설전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유물 전체가 처음으로 공개 전시된 것은 2005년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린 『왕의 초상』 특별전에서였으며, 필자는 당시 박물관 측의 도움으로 이들 유물을 열람 및 조사할 수 있었다. 현재 이 사리장엄구는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실에 전시되어 있다. 유물 조사에 도움을 주신 국립전주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sup>2</sup> 이 사리장엄구 세트에 포함된 5점의 백자는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알려진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우리나라의 경질백자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년명 작품이다. 이 백자들의 도자사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선행들이 지적한 바 있다. 崔享雨, 「高麗陶磁의 編年」, 『世界陶磁全集』 18 高麗(東京:小學館, 1978), p.178; 姜敬淑, 『韓國陶磁史』(一志社, 1989), pp.211-213, 239-240;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文藝出版社, 1991), p.122. 최근 이 백자들을 제작한 곳으로 추정되는 강원도 양구 방산면의 도요지들이 조사되고 방산자기박물관이 건립되면서 이들의 중요성이 세삼스럽게 부각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陽口 方山の 陶窯址 地表調査報告書』(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1), p.33.

과 양식적 고찰을 중심으로 이 사리장엄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하겠다.

이 사리장엄구는 1932년 방화선 공사 도중에 우연히 金剛山 月出峰의 한 石函 안에서 출토되었다.<sup>3</sup> 사리장엄구의 명문 중에는 ‘金剛山 毘盧峰 舍利 安遊記’라는 내용이 있어서 원래 비로봉에 봉안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발굴 장소는 月出峰인 점이 주목된다. 아쉽게도 당시의 발굴보고서가 없으므로, 발견 당시의 상태와 다른 공반 유물의 유무는 알 수 없다. 이들은 1932년 12월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신인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졌으며, 1933년 7월 본관품으로 등록되었다.<sup>4</sup> 당시 일부 백자는 구연부가 파손된 상태였고, 금속기들도 표면에 이물질과 녹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보존처리된 상태이다.

이성계 발원 불사리장엄구가 제작된 14세기 후반에는 불교가 지배적인 사상이었으며, 이성계 자신도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또한 이 사리장엄구의 명문에는 조선 건국과 관련된 고려 구귀족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조선 건국 과정에서 이들 고려 구귀족 세력과 불교계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조선 건국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잊혀져 왔다. 이성계 발원 불사리장엄구는 표면적으로는 이성계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개인적 종교 신앙을 위해 발원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張勳의 三會를 표방하며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성계의 의지가 드러나 있으며, 그의 신왕조 창건에 동조하는 고려 불교계의 구귀족 세력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단순한 개인 발원의 종교적 작품이라기보다는 이성계의 신왕조 창건과 관련된 정치적 조형물로 해석된다.<sup>5</sup> 여기에서는 먼저 불사리장엄구가 제작된 14세기 후반의 정치 및 불교적 배경을 고찰한 후, 각 기명별로 장엄구의 구성과 양식을 검토하겠다.

<sup>3</sup> 이 사리장엄구는 강원도청 산업과의 금강산 방화선 개착공사 중에 석함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한다. 유용태, 『강원의 美』(春川: 江原日報社, 1993), p. 30. 당시 발굴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다.

<sup>4</sup> 『중앙일보』 1932년 12월 13일자 2면에는 「금강산 월출봉에서 500년 전 納骨器 발견」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가 실린 바 있는데, 그 기사에 의하면 도은으로 만든 귀고리, 진유계 식기, 토기 등이 함께 발굴되었으며, 이 유물들이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져 조사되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카드에 의하면 1933년 7월 30일에 입수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날짜상의 차이는 아마도 입수 후 유물 등록까지 걸린 기간때문일 것이다.

<sup>5</sup>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의 제작이 단순한 신앙 행위라기보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였다고 보는 견해는 蔡雄錫에 의해서도 발표된 바 있다. 蔡雄錫 「여말선초 향촌사회의 변화와 埋香활동」, 『歷史學報』 173(2002. 3), pp. 110-112.

## II. 14세기 후반의 정치와 불교

조선 건국 직전인 14세기 후반은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흥하기 시작하는 변혁기였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고려의 정세도 변화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였다. 고려의 국교로 숭앙되던 불교도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전해진 라마교나 指空과 같은 외국 禪僧 등의 영향으로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조계종계 선승들을 중심으로 불교계의 자정화 운동이 진행되었으며, 승려와 儒臣들과의 교류도 풍부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여기에서는 먼저 14세기 후반의 정치적 상황과 이성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후, 당시 불교계의 특징 및 변화 양상을 고찰하겠다.

### 1. 이성계와 14세기 후반의 정치적 상황

이성계는 1335년 함경남도 영흥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전주이지만, 고조부때부터 동북 지방에서 거주한 호족 출신이다.<sup>6</sup> 14세기 중반경 부친과 함께 공민왕의 반원운동에 참여하면서, 능력있는 무신으로서 고려 조정에서 활약하였다.<sup>7</sup>

이성계가 고려 조정에서 활약한 14세기 후반은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흥하기 시작하는 변혁기였다. 고려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기운과 함께 정몽주, 정도전, 조준 등 개혁을 주장하는 새로운 신진사대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성계는 일찍부터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sup>8</sup>

이성계가 정권을 잡은 결정적인 계기는 1388년의 威化島回軍이었다.<sup>9</sup> 威化島에서 돌아

<sup>6</sup> 이성계의 생애에 대한 기본 자료로는 <太祖建元陵神道碑>의 비문과 『太祖實錄』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그 외에 이성계의 생애와 가계에 대해서는 지두환, 『태조대왕과 친인척』(역사문화, 1999) 및 이익주, 「이성계와 전주」, 『왕의 초상』(국립전주박물관, 2005), pp.188-200 참조.

<sup>7</sup> 고려 말 이성계 세력의 성장에 대해서는 柳昌圭, 「李成桂의 軍事的 基盤-東北面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58(1984), pp.1-16 및 崔在晉, 「高麗末 東北面의 統治와 李成桂 勢力 成長-雙城摠管府 收復以後를 中心으로」, 『史學志』 26(1993. 7), pp.167-193 참조.

<sup>8</sup> 金塘澤, 「高麗 禪王代 李成桂와 鄭夢周·鄭道傳의 정치적 결합」, 『歷史學報』 158(1998), pp.31-62

<sup>9</sup> 위화도회군에 대해서는 姜芝嫻, 「威化島回軍과 그 推進勢力에 대한 연구」, 『梨花史學研究』 20·21(1993), pp.53-78 및 김당택, 「李成桂의 威化島回軍과 制度改革」, 『전남사학』 24(2005), pp.137-165 참조.

와 권력을 잡은 이성계는 당시 최고 권력자인 최영과 禔王을 몰아내고, 昌王을 즉위시켰다. 1389년 11월에는 다시 昌王을 폐하고 恭讓王을 추대하였다. 공양왕의 즉위와 함께 이성계는 守門下侍中이 되었으며,<sup>10</sup> 공신으로 책봉되어 ‘奮忠定難 匡復變理 佐命功臣’의 칭호를 받았다.<sup>11</sup> 이후 이성계는 兵權을 장악하였으며, 1390년 4월에는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공을 세웠던 회군공신을 임명하였다. 당시 회군공신의 대부분은 이성계의 신왕조 창건에 동조한 인물들이다. 회군공신 중에서 同知密直司事로 있던 黃希碩은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의 명문에 등장하는 同知密直 黃希釋과 동일한 인물로 보인다.<sup>12</sup>

위화도회군 이후 권력을 잡은 이성계와 그의 추종자들은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측면에서 총체적인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고려의 구세력과 여러 차례 충돌을 일으켰으나 결국 이성계 세력에 의해서 새로운 제도가 정비되었다.<sup>13</sup> 이성계가 언제부터 신왕조의 창건을 꿈꾸기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체로 1390년경부터 보인다.<sup>14</sup> 흥미로운 것은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도 이즈음부터 제작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명문에 의하면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는 1390년 3월부터 1391년까지의 5월까지 제작되었다.<sup>15</sup>

당시 『高麗史』에 의하면, 이성계는 1390년 10월 초하루 기미일에 병으로 휴가를 얻어서 關門溫井을 방문하였고, 11월에는 ‘領三司使’로 임명되었다. 1391년 정월에는 삼군도총계사로 임명되었으나, 3월에는 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고 平州溫井에 갔다가 문하시중으로 임명되었다. 그 이후에도 이성계는 여러 차례 병을 칭하여 사직서를 내고 쉬다가 다시 높은 관직을 수여받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이성계의 稱病辭職과 재임용 과정의 반복은 아마도 유교적 관점에서의 讓立, 즉 易姓革命을 위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sup>16</sup> 또한 휴가기간 중

<sup>10</sup> “王即位于壽昌宮……我太祖守門下侍中…….” 『高麗史』世家 권45, 恭讓王 1 원년 11월 庚辰日.

<sup>11</sup> “賜九功臣錄券以我太祖爲奮忠定難匡復變理佐命功臣爵和寧郡開國忠義伯…….” 『高麗史』世家 권45, 恭讓王 1 원년 12월 甲申日.

<sup>12</sup> 당시 한문으로 인명을 표기할 때에는 음이 같은 글자를 바꾸어 쓰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한편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의 명문 전문은 본문 부록을 참조.

<sup>13</sup> 당시 이성계 세력이 행한 다양한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韓永愚, 『朝鮮前期 社會經濟研究』(乙酉文化社, 1983), pp. 29-47 참조.

<sup>14</sup> 지두환, 앞의 책, p. 33.

<sup>15</sup> 이성계 발원 불사리장엄구의 구체적인 명문의 내용은 본문의 〈부록〉과 제Ⅱ장 참조.

<sup>16</sup> 왕과 왕조의 교체가 천명과 민심의 항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孟子에서부터 시작된 유교적 사상으로서, 이성계의 칭병사직과 재임용의 반복은 이성계가 有德者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왕조 창건의 유교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김대용, 「정도전의 정치이념과 배불론-조선왕조 창건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를 중심으로」, 『湖西文化研究』10(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2), pp. 99-122.

에 지방을 방문하면서, 사리장엄구가 매납될 금강산 지역이나, 사리장엄구를 제작하던 곳을 방문하기도 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기록과 현존유물을 통해서 1390년부터 1391년경까지 이성계가 유교적·불교적 측면에서 암암리에 양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正史에는 유교적 측면만이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양위의 형식으로 즉위했으며,<sup>17</sup>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어 역성혁명을 완성하였다.<sup>18</sup> 이후 그는 1398년 정종에게 선위하고 上王, 太上王으로 지내다가 1408년 5월 24일 승하하였다.<sup>19</sup>

## 2. 14세기 후반 불교계의 변화

14세기 후반의 고려 불교는 왕실 및 권문세가의 후원 속에서 세속화 경향이 심화되었고, 공민왕대의 승려 朴訥의 부정부패로 인해 종교적 권위는 실추되었다. 그러나 懶翁과 普愚 등 조계종계 선승들을 중심으로 자정화 운동이 진행되었고, 승려와 儒臣들과의 교류도 풍부한 시기였다. 고려 말의 불교계에 대해서는 이미 허홍식, 채상식, 황인규 등 여러 선학의 연구가 있기 때문에,<sup>20</sup> 여기에서는 이성계 발원 사리기의 제작배경과 관련된 중요한 점만 살펴보겠다.

### 1) 조계종계 승려들과의 교류

먼저 여말선초의 삼대 화상으로 불리는 指空(1235?-1361), 懶翁(1320-1376), 無學(1327-1405) 및 普愚, 混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계종계 선승들의 활약과 이성계와의 관계가 주목된다. 그 중에서도 무학대사는 이성계를 도와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많은 공헌을 한 승려로 유명하다.<sup>21</sup>

무학을 제외한 다른 승려들과 이성계의 직접 교류는 문헌사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sup>17</sup> “十七日丙申 太祖卽位于壽昌宮.” 『太祖實錄』 권1, 太祖 원년 7월 17일 丙申.

<sup>18</sup> 이성계의 조선 건국 과정에 대해서는 李相侁, 『李朝建國의 研究』(乙酉文化社, 1949) 참조.

<sup>19</sup> “太上王薨于別殿.” 『太宗實錄』 권5, 太宗 8년 5월 24일 壬申.

<sup>20</sup> 여말선초기의 불교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許興植, 『高麗佛敎史研究』(一潮閣, 1986); 蔡尙植, 『高麗後期佛敎史研究』(一潮閣, 1991); 불경사당 훈문회 편, 『삼대화상 연구 논문집-지공·나옹·무학 화상』(도서출판佛泉, 1996); 황인규,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 연구』(혜안, 2003); 上同,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연구』(혜안, 2005).

<sup>21</sup> 무학대사에 대해서는 黃仁奎, 『無學大師 研究』(혜안, 1999) 참조.

그러나 1383년 李穡과 懶翁의 문도들이 발원하여 건립한 경기도 여주군 신흥사의 神勸寺大藏閣記碑에는 우바세 중 하나로서 判三司 李成桂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서 주목된다.<sup>22</sup> 神勸寺大藏閣記碑에는 이성계 외에도 ‘淸溪寺 自超(무학대사)’, ‘定昌君 瑤(후의 공양왕)’, ‘領門下 崔瑩’, ‘南陽府院君 洪永通’, ‘貞順宅主 黃氏’, ‘樂良郡夫人 金氏’ 등 당시 권세가 및 이성계 관련 인물의 이름이 보여서 주목된다. 이 중 홍영통이나 정순택주 황씨, 낙랑군부인 김씨 등은 이성계가 사리장엄구를 발원했을 때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다.

1384년 건립된 평안북도 영변군 묘향산 안심사의 安心寺指空懶翁碑에도 역시 誠亮節愷輔理定遠功臣 三重大匡 完山府院君 李成桂의 이름이 발원자 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어서 주목된다.<sup>23</sup> 이 비석의 발원자 중에도 역시 홍영통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으며, 무학 및 혼수 등의 승려들의 이름도 보인다.

한편 1385년 건립된 경기도 고양시 태고사에 普愚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太古寺圓證國師塔碑에도 判三司事 李成桂의 이름이 문도로서 등장하고 있다.<sup>24</sup> 또한 이성계가 즉위한 지 2년 후인 1394년 혼수가 사망했을 때에는 왕명으로 충주 청룡사에 靑龍寺普覺國師旃定禪圓融塔碑를 건립하기도 하였다.<sup>25</sup>

그러므로 14세기 말의 여러 불교 금석문 자료들을 통해서 이성계가 조계종 계열의 선승들과 즉위 전부터 즉위 후까지 지속적으로 교유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나름대로 독실한 신도로서 여러 가지 佛事に 참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금석문 중에는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의 명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간혹 발견되는데, 그중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홍영통이다. 아마도 이성계와 홍영통이 1383년 신흥사 대장각의 건립, 혹은 그 이전부터 佛事를 통해 교유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계종계 선승들과 귀족 계층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색을 비롯

<sup>22</sup> 神勸寺大藏閣記碑는 신흥사의 大藏閣 창건을 기록한 비석으로, 1383년 신흥사 경내에 세워졌으며, 현재 보물 23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하 여러 비석 및 명문자료의 원문과 해석은 모두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cip.go.kr/)>의 해당 항목 참조.

<sup>23</sup> 이 비석은 자공과 내용을 기리기 위해서 이색이 짓고 권주가 쓴 것이다. 명문 내용은 李智冠, 『杖勸講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4』(가산불교문화연구원출판부, 1997), pp.403-438 및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참조.

<sup>24</sup> 위의 책, pp.449-472 및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참조. 이 비석은 현재 보물 61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 태고사에 소장되어 있다.

<sup>25</sup> 이 비석은 현재 보물 65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동 청룡사지에 있다. 명문 내용은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및 李智冠, 『杖勸講註 歷代高僧碑文 朝鮮篇 1』(가산불교문화연구원출판부, 1999), pp.29-63 참조.

한 고려 구세력들 중에는 유학자이면서도 개인적 신앙으로서 불교를 중시하는 儒佛一致思想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여말선초기에는 정도전, 조준 등과 같은 성리학 중심의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억불정책이 끊임없이 추진되었지만, 이색과 같이 유불일치사상을 가진 사대부들도 상당수 있었다.<sup>26</sup> 이성계를 비롯한 조선왕실에서 억불숭유정책을 펼치면서도 지속적으로 護佛 행위를 했던 것은 이러한 고려 말의 사상적 특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 2) 고려 후기 불교성지로서의 금강산

다음으로는 고려 후기 불교계에서 聖地로서 명성을 얻고 있던 金剛山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살펴보겠다. 이성계 발원 불사리장엄구가 발견된 금강산은 당시 고려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성지였다.

금강산이라는 명칭은 『華嚴經』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일만 이천의 권속을 거느린 曇無竭菩薩(혹은 法起菩薩이라고도 함)이 이 산에 상주한다는 보살주처신앙을 반영한 것이다. 금강산이 불교 성지로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고려 태조 왕건이 금강산에서 曇無竭菩薩의 현신을 목격하고 예를 갖춘 것을 기념하여 正陽寺가 세워졌다고 하는 설화로 볼 때, 고려시대 이후로 생각된다.<sup>27</sup> 1307년 魯英이 그린 〈黑漆金泥小屏〉의 뒷면에는 금강산의 모습과 함께 고려 태조가 권속을 거느린 曇無竭菩薩에게 頂禮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서 주목된다.<sup>28</sup>

금강산이 불교 성지로서 크게 발전하는 것은 주로 고려 후기이다. 특히 원나라 황실과 고려 왕실의 후원 아래에서, ‘불교 성지로서의 금강산’ 인식은 14세기 중·후반에 최고조에 달했다. 1343년 원나라의 기황후는 황제와 태자를 위해 장안사를 중창하였으며, 표훈사도 역시 원나라의 황제들이 시주하여 중창하였다. 고려와 조선의 왕실에서도 금강산의 여러 사찰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였다. 이러한 왕실의 후원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였으며, 금강산은 祈福을 목적으로 한 도량으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sup>26</sup> 高惠玲, 「나옹선사(懶翁禪師)와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사상적 만남」, 『나옹선사의 생애와 사상』 학술발표대회는문집(동국대학교 사찰조경연구소, 2001. 5), pp. 81-102; 上同, 『牧隱集』을 통해 본 李穡의 불교와의 관계, 『震植學報』 102(2006), pp. 351-388.

<sup>27</sup> 금강산의 명칭과 불교기암의 조영에 대해서는 金澤, 「金剛山の由來와 그 宗教的意味」, 『東洋古典研究』 1(1993), pp. 215-261 및 蘇在龜, 「金剛山 佛教伽藍의 造營과 그 性格」, 『아름다운 金剛山』(국립중앙박물관, 1999), pp. 238-253 참조. 金澤은 금강산의 불교 성지화 혹은 신앙대상화는 고려 말기부터라고 하였다.

<sup>28</sup> 노영의 〈후칠금니소병〉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金承熙, 「魯英의 金剛山 曇無竭(法起)·地藏菩薩現身圖」, 『아름다운 金剛山』(국립중앙박물관, 1999), pp. 254-275.

당시 유명한 승려들도 대부분 금강산에서 한동안 거주했다고 전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승려는 고려 말기의 나옹선사이다. 나옹선사가 실제로 금강산에서 얼마나 거주했는지는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고 있지만, 현존하는 금강산의 대표적인 마애불인 삼불암에도 나옹선사와 관련된 전설이 전하고 있다. 나옹이 금강산에서 지냈던 것은 1360년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나옹의 제자이자 이성계와 절친했던 무학대사도 함께 금강산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9</sup>

이와 같이 당시 불교 성지이자 기복도량으로서 명성을 얻고 있던 금강산에 대한 인식이 당시 불교계 및 지배계층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점은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가 금강산에 봉안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즉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는 발원자들이 원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당시 가장 영험한 성지이자 기복도량인 금강산의 제일 높은 곳에 봉안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다.

### 3) 고려 말 미륵신앙의 유행과 埋香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것은 고려 말 민중들 사이에서 유행한 미륵신앙의 문제이다. 대체로 고려시대의 미륵신앙은 미륵불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를 기대하는 彌勒下生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sup>30</sup> 특히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이 빈번하고 사회가 혼란했던 14세기 후반에는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는 민중의 염원이 미륵신앙과 연결되어 크게 성행하였다. 당시의 미륵신앙은 특정 종파적 성격을 가졌다기보다는, 민중운동이라는 정치적 성격과 복합된 현상이었다. 禡王代에는 固城의 伊金을 비롯한 여러 명이 미륵불을 자칭하고 세력을 모았다가 처형당한 사건이 『高麗史』에 기록되어 있다.<sup>31</sup>

이러한 민중적 성격의 미륵하생신앙이 좀더 구체적인 종교 행위로 표출된 것은 고려 말 조선 초 해안지방에서 유행한 埋香碑의 건립이다.<sup>32</sup> 埋香은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어서 沈香

<sup>29</sup> 나옹이 금강산에 있었던 시기는 1366년경으로 알려져 있으며(金曉春, 『高麗末 懶翁의 禪思想 研究』(民族社, 1999), pp.33-34), 무학이 금강산을 방문한 시기는 1361년경이라고 하기 때문에(黃仁奎, 앞의 책(1999), pp.36-39), 이들의 금강산 방문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sup>30</sup> 미륵신앙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구원, 혹은 새 세상의 출현을 약속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睦楨培, 『韓國彌勒信仰의 歷史性』, 『韓國思想史學』6(1994), pp.47-72 참조.

<sup>31</sup> 伊金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107, 列傳 20 權和條 권 119, 列傳 32 鄭道傳條 참조. 그 외에 1381년 5월에는 서울의 한 여승이 미륵불의 화신을 자칭하여 처벌 받았으며(권134, 列傳 47 辛禡 2), 1382년 2월에는 無敵이라는 노비가 미륵의 화신을 자처하여 주살되었다(권 134, 列傳 47 辛禡 2).

<sup>32</sup> 대항 및 대항비 건립에 대해서는 李海濬, 「埋香信仰과 그 主導集團의 성격 -14, 5세기 埋香事例의 分析」, 『金哲



도2 <사천대향비>, 고려 1387년  
높이 160cm, 경남 사천시 홍사리  
(사진: 필자)

을 만드는 행위인데, 埋香碑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승려들에 의해서 주도된 이 의례가 미륵하생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1387년 경남 사천시 홍사리에 세워진 <四川埋香碑>는 천 명이 계를 맺어서 대향하고 발원한 것이다.<sup>33</sup> 이 비석의 명문중에는 “.....千人이 함께 발원하여 침향목을 묻고, 그로써 慈氏의 下生과 龍華三會를 기다리며, 이후 이 향을 가지고 미륵여래에게 봉헌 공양하기를 기원하니.....”는 내용이 있다.<sup>34</sup> 이러한 내용은 미륵하생신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기원하는 당시의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의 명문 중에도 대향비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하게 ‘미륵하생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여 주목된다.’<sup>35</sup> 또한 이 사리장엄구 세트 중에는 향로와 향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리장엄구의

대납 의례가 당시 민중들 사이에서 유행한 미륵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埋香 의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리장엄구의 봉안 목적은 단순히 신앙적 차원에서 불사리를 공양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민중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의 표출이라고 해석된다.

다음으로는 이성계 발원 불사리장엄구의 구성 및 양식에 대해서 개개 유물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坡博士華甲紀念論叢』(1983), pp.367-390; 채웅석, 앞의 논문, pp.95-125; 도이 쿠니히코, 「埋香碑文의 基礎檢討」, 『지방사와 지방문화』 6-1 (2003), pp.79-119; 이준근, 「韓國 埋香碑의 內容 分析」, 『論文集』 13 (木浦海洋大學校, 2005), pp.93-101.

<sup>33</sup> 이 대향비는 높이 160cm의 자연 석에 명문을 새긴 것으로 현재 보물 614호로 지정되어 있다. 명문의 全文 및 해석은 蔡雄錫, 「여말선초 四川 지방의 埋香活動과 地域社會」, 『한국중세사연구』 20(2006, 1), pp.235-238 참조.

<sup>34</sup> “.....大願埋 沈香油以待 慈氏下生龍華三會持此香達 奉獻供養彌勒如來.....” 위의 논문, p.236에서 원문 인용. 해석은 필자가 약간 바꾸었음.

<sup>35</sup> <白磁鉢 1>의 명문과 <白磁鉢 2>의 기면 내측 명문에 미륵 삼회를 기다린다는 구절이 나온다. 부록 참조.

### III. 이성계 발원 불사리장엄구의 구성 및 양식

이성계 발원 불사리장엄구는 모두 9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재질별로 나누면 銀器 3점, 銅器 1점, 白磁器 5점 등이다. 여기에서는 명문의 유무에 따라 有銘容器 5점과 無銘容器 4점을 나누어 명문의 제작연대를 중심으로 고찰하겠다.<sup>36</sup>

#### 1. 有銘容器

명문이 있는 용기는 ① 銀製鍍金喇嘛塔形舍利器, ② 銀製鍍金八角塔形舍利器, ③ 靑銅盃, ④ 白磁鉢 1, ⑤ 白磁鉢 2 등 모두 다섯 점이다. 이들은 각각 재질과 크기 등이 차이가 있으며, 명문의 내용도 약간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명칭과 명문의 위치, 명문의 주요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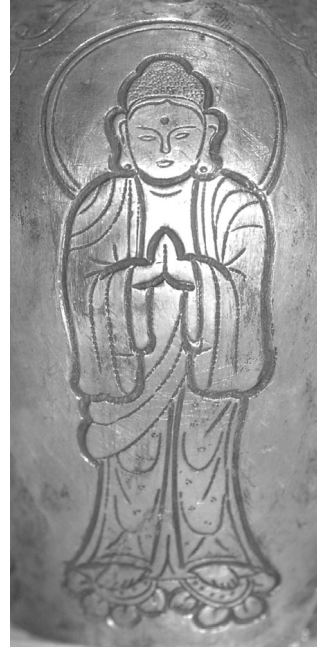
표 1 有銘容器 目錄

번호	이름(유물번호)	제작연대	명문위치	주요 등장인물	높이
①	銀製鍍金喇嘛塔形舍利器 (본 권 3072, 銀製鍍金舍利塔)	X	원통형 은판 표면 縱書	李成桂, 康氏, 勿其氏	15.5cm
②	銀製鍍金八角塔形舍利器 (본 권 3073, 銀製鍍金舍利龕)	1390년 3월 일 (庚午)	원통형 은판 표면 縱書	月菴, 加伊氏, 安月, 黃希釋, 樂浪郡夫人 妙禪, 江陽郡夫人 李氏 妙情, 樂安郡夫人 金氏, 朴子靑	19.8cm
			원통형 은판 구연부 橫書	洪永通, 貞順宅主 黃氏, 興海郡夫人 裴氏	
③	靑銅盃 (본 권 3075)	1391년 2월 일 (洪武 24년 辛未)	구연부 점각 橫書	信堅, 妙明, 朴龍	11.9cm
④	白磁鉢 1 (본 권 3076)	1391년 4월 일 (洪武 24년 辛未)	외면 縱書	月菴, 松軒侍中(이성계)	19.5cm
⑤	白磁鉢 2 (본 권 3078)	1391년 4월 일 (辛未)	외면 굽주위	沈龍, 信寬	17.5cm
		1391년 5월 일 (辛未)	내면 縱書	月菴, 李成桂, 康氏, 樂浪郡夫人 金氏 妙善, 江陽郡夫人 李氏 妙情, 樂安郡夫人 金氏, 興海郡夫人 裴氏	

<sup>36</sup> 논문 중에서 사용하는 작품의 명칭은 국립박물관 유물카드의 명칭을 따르지 않고, 필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했다. 박물관카드의 명칭과 유물번호, 크기 등은 <표 1>을 참조



도3 은제도금라마탑형 사리기. 1389년 이후. 전체 높이 15.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왕의 초상』, p.31)



도4 도3의 세부, 합장인 불입상(사진: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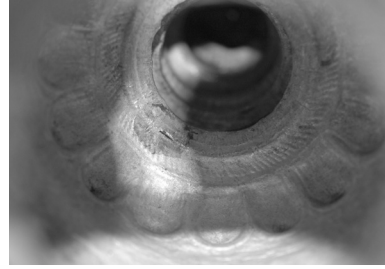
인물 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명문의 원문은 논문 말미에 <부록>으로 따로 게재하였다.

먼저 명문이 있는 용기 중에서 가장 안쪽 용기인 은제도금라마탑형 사리기를 살펴보겠다. 도3. 이 사리기는 유리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원통형 용기와 연화형 대좌, 원통형 은판, 라마탑형 뚜껑 등이 결합된 것으로, 원통형 용기는 연화형 대좌 위에 놓여져 라마탑형 용기 안쪽에 봉안된다. 사리는 원통형 용기 안에 봉안되어 있었다고 추정된다. 명문은 원통형 은판의 표면에 새겨져 있는데, 내용은 발원자인 이성계와 그의 부인 강씨, 그리고 신분을 알 수 없는 물기씨 등 세 사람의 이름이다. 여기에는 1389년 공양왕의 옹립 이후에 받은 이성계의 직위인 ‘舊忠定難匡復變理佐命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 守門下侍中’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즉 이 사리장엄구의 제작연대는 1389년 이후가 된다. 한편 조선 건국 이후 신덕왕후로 봉해지는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강씨가 발원자로서 함께 등장하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인 한씨의 이름은 이 사리장엄구 명문 전체에서 찾아볼 수 없다.<sup>37</sup>

<sup>37</sup> 후에 신의왕후로 추존되는 韓氏 부인은 1391년 9월 23일 죽었으므로, 이 사리장엄구가 제작되던 때에는 생존해 있었다. 한씨의 이름이 없는 것은 이 사리장엄구의 제작이 단순한 개인적 佛事가 아니라 신왕조 창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이 일에 강씨 부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도5 도3의 대좌 밑면(사진: 필자)



도6 도3의 탑신부내부 모습(사진: 필자)

물기씨는 이틈으로 볼 때, 신분이 낮은 제작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 라마탑형 사리기의 형식은 고려 후기에 등장한 새로운 사리장엄구 형식을 따르고 있다.<sup>38</sup> 이 사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합장한 佛立像 4구가 표면에 장식된 점이다<sup>도4</sup>. 이 불상들은 얼굴만 약간씩 다를 뿐, 자세와 수인, 의습의 표현 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四方佛 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합장을 한 자세로 볼 때 공양자의 모습에 가까운 인상이다.

이 사리기는 기본적으로 얇은 銀板을 이용하여 鍛造와 打出技法으로 제작한 것으로, 불상을 비롯한 표면의 문양은 麟形과 魚子文技法, 그리고 線彫技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대좌부와 상륜부 등 주요 부분과 불상 부분을 비롯한 문양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도금한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여 주목된다. 이 사리기의 제작기법에서 가장 뛰어난 점은 연화형 대좌의 하단부 및 라마탑의 상륜부 제작에 활용된 타출기법이다. 연화형 대좌는 타출한 은판 1장과 연꽃 모양으로 자른 은판 3장을 겹쳐서 연결한 것으로, 고부조의 타출기법으로 제작한 하단부의 제작기법이 주목된다. 하단부는 한 장의 은판을 타출하여 변형 여의두문 형태의 독특한 다리와 2단의 연판문대, 원형 대좌부 등 여러 단을 표현하였다<sup>도5</sup>. 이러한 타출 연화형 대좌는 고려 후기에 유행한 양식으로, 전통적인 육각, 혹은 팔각탑형 용기에 사용되는 경우와 고려 말의 새로운 형식인 라마탑형에 쓰이는 경우가 있다.<sup>39</sup> 역시 타출기법으로 제작된 라마탑형 뚜껑부는 4단의 원판형을 연결한 형태의 상륜부와 계란형 탑신부가 각각 별도로 제작되

<sup>38</sup> 고려 후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라마탑형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秦弘燮 「高麗時代の舍利莊嚴具」, 『考古美術』 180(1988. 12), pp.69-123; 鄭恩雨, 「高麗後期 喇嘛塔形 舍利具 研究」, 『東岳美術史學』 3(2002), pp.303-323; 周昞美 「원대 라마탑 양식이 한국 불교미술에 미친 영향」,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2권 한국 및 동양의 미술』(향산 인취준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사회평론, 2006), pp.576-597.

<sup>39</sup> 이러한 대좌 형식을 가진 고려 후기의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주경미, 위의 논문(2006), pp.593-594 참조.



도7 은제도금팔각탑형 사리기, 1390년.  
전체 높이 19.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왕의 초상』, p.31)

어 결합된 것이다. 특히 원판형을 연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한 장의 은판으로 제작한 상륜부의 표현은 고도로 발달된 타출기법의 수준을 보여주어 주목된다도6.

이 사리용기의 제작에 사용된 발달된 타출기법과 부분도금기법은 이미 중국 唐代 金銀器에서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타출기법은 고려시대 이후 상당히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기 때문에,<sup>40</sup> 이러한 타출기법의 발달은 전통적인 금속공예

기법을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려시대 금은기나 사리장엄구 중에는 이 사리장엄구와 같이 부분도금기법으로 장식한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리장엄구에 보이는 독특한 부분도금기법은 이 시기에 새로 유행하는 양식으로 보인다.

두 번째 용기는 은제도금팔각탑형 사리기로서 도7, 앞서 고찰한 라마탑형 사리기는 이 안에 봉안되었던 것이다. 이 사리기도 별도로 만들어진 연화형 대좌, 팔각형 은판, 팔각지붕형 뚜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문은 역시 팔각형 은판의 표면에 새겨져 있는데, 중서와 횡서로 나누어 쓰여 있다. 발원문에는 庚午 3월일에 사리탑을 조성하여 봉안한다는 내용과 발원자의 이름 등이 있다. 여러 명의 등장인물 중에서 주목되는 사람은 納子 月菴, 領三司事 洪永通, 同知密直 黃希釋, 朴子靑 등이다.

『世宗實錄』에 의하면 월암은 태조가 잠저 때에 보호하던 승려로 태조의 御眞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sup>41</sup> 그의 행적은 자세하지 않으나, 다른 백자 그릇의 명문에도 모두 이름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리기의 발원 의례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승려임을 알 수 있다.

홍영통은 원래 문음으로 출세한 고려 말의 권문세가 중 한 명이며 우왕의 친인척이었으나, 조선 초에도 개국공신으로 임명되어 계속 권세를 유지한 인물이다. 홍영통은 이성계가 즉위한 이후 1395년 왕의 탄일 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말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왕이

<sup>40</sup> 고려시대의 타출기법에 대해서는 김은애, 「고려시대 타출 공예 연구」, 『美術史學研究』 253(2007. 3), pp.31-72 참조.

<sup>41</sup> “上聞僧月菴曾受太祖眞 藏於黃海道江陰縣雙鳳寺 遣宦官趙珠奉來 藏諸尚衣院 月菴乃太祖潛邸時所護僧也.” 『世宗實錄』 권18, 世宗 4년 10월 25일 己酉.

매우 애석하게 여겼다.<sup>42</sup>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홍영통은 조선 건국 이전부터 이성계와 여러 가지 佛事에 함께 참여했던 인물로서 독실한 불교신자였다고 알려져 있다.

황희석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함께 했던 武人으로, 회군공신으로 봉해졌던 인물이다.<sup>43</sup> 그는 태조의 즉위 당시 부친의 상중이었기 때문에 직접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개국공신의 칭호를 받은 특별한 인물로서 주목된다.<sup>44</sup> 황희석도 홍영통과 마찬가지로 즉위 전부터 이성계와 교유했던 고려의 구귀족이자 불교세력의 한 명으로 추정된다.<sup>45</sup>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박자청은 조선 초기의 유명한 건축 감역관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sup>46</sup> 『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박자청은 황희석의 家人으로 내시 출신이며, 태조가 즉위할 때에 中良將이 되었다. 1394년 선공소감이 되었으며, 1395년 원종공신녹권을 받았다. 이후 태종 연간에 공조판서를 지내면서, 태조의 건원릉, 태종의 현릉, 문묘, 창덕궁, 문소전 등의 토목공사를 감역하였다.<sup>47</sup> 이러한 正史의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박자청의 초기 행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명문이다. 이 사리장엄구가 제작된 1390년에 박자청은 30대 초반이었고, 그 이전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사리장엄구의 명문에서 박자청의 이름은 羅得富, 李氏, 勿龍 등과 함께 만든 사람으로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 즉 박자청은 은제도금라마탑형 사리기의 명문에 등장하는 물기씨와 마찬가지로 제작자이거나, 혹은 제작 실무에 종사했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朝鮮王朝實錄』에서는 박자청이 태조 즉위시에 中良將이 되고 선공소감과 원종공신녹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 사리장엄구의 제작과 관련된 공적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박자청은 궁궐과 문묘 등 대형 토목공사의 감역만을 담당한 인물로 알려져 있

<sup>42</sup> 홍영통의 생애에 대해서는 『太祖實錄』 권8, 太祖 4년 10월 11일 辛丑 참조.

<sup>43</sup> 황희석은 1394년 병으로 죽었으며, 태조가 잡저에 있을 때부터 휘하에서 방어진 공로가 컸던 인물이라고 한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太祖實錄』 권5, 太祖 3년 8월 3일 庚午 참조.

<sup>44</sup> 『太祖實錄』 권2, 太祖 원년 11월 19일 丙申.

<sup>45</sup> 황희석의 출신에 대해서는 武臣으로 보는 설과 환속한 승려로 보는 설 등 여러 가지가 있어 자세하지 않다. 『太宗實錄』 권25, 太宗 13년 3월 5일 甲申.

<sup>46</sup> 박자청은 1359년에 태어나서 1423년 67세의 나이로 죽었으며, 특히 태종 연간의 주요 토목 공사의 감역관을 지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제까지 박자청에 대해서는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태조 즉위 후부터의 생애에 대해서만 알려져 있었다. 박자청에 대해서는 申榮勳, 「太宗朝 監役官 朴子靑攷」, 『鄕土서울』 48(1989, 10), pp 5-55 및 林玲愛, 「開城 恭愍王陵石人像 研究」, 『講坐 美術史』 17(2001, 12), pp.47-75 참조.

<sup>47</sup> 『世宗實錄』 권22, 世宗 5년 11월 9일 丙戌의 줄기에 의함.

지만, 그 외에도 중국에 보내기 위한 銀을 채굴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했으며,<sup>48</sup> 敦仁門鐘의 감역에 관계하기도 하였다.<sup>49</sup> 또한 興教寺塔과 禪興寺塔의 이건에도 관여하였으며,<sup>50</sup> 興天寺塔의 수리도 담당하는 등<sup>51</sup> 다양한 재능을 보였던 인물이다. 즉 박자청은 황희석의 家人으로 있으면서 각종 기물 제작이나 토목 공사에 일찍부터 재능을 보여 이 사리장엄구의 제작에 관여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박자청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한 것은 태종 연간이지만 이 사리장엄구는 박자청의 초기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작품이다.

이 팔각탑형 사리기는 기본적으로 라마탑형 사리기와 제작기법이 같으나, 형식은 팔각탑형을 따르고 있다. 팔각탑, 혹은 육각탑 등과 같은 多角塔形 사리용기는 우리나라에서 9세기경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14세기경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던 형식이다. 1388년 제작된 壽傳寺址 普濟尊者舍利塔 출토 사리장엄구 중에 있는 소형의 은제육각탑형 사리기에는 아직 古式의 변형 여의두 형태의 다리장식이 달린 대좌가 갖추어져 있다.<sup>52</sup> 그러나 14세기 말의 水鐘寺 浮屠 출토 은제도금육각탑형 사리기에서는 이성계 사리기와 마찬가지로 납작한 연화대좌로 변형되어 있어서 공통점을 보인다.<sup>53</sup> 보통 고려 후기의 일반적인 사리장엄구에서는 가장 안쪽의 용기가 팔각탑, 혹은 육각탑 형식을 하고, 라마탑형 용기는 바깥쪽의 용기가 된다. 그러나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에서는 탑 형태가 서로 뒤바뀐 점이 특징이다. 즉 가장 안쪽의 용기가 라마탑형식이고, 바깥쪽 용기가 팔각탑형이 되었다. 사리장엄구 중에서 사리를 직접 봉안하는 가장 안쪽의 용기가 가장 중요하고 값비싼 재질로 만들어지던 전통으로 볼 때, 이것은 당시 발원자들에게 라마탑 형식이 전통적인 팔각탑, 혹은 다각탑 형식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형식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중요하다.

한편 이 사리기에도 표면에는 합장을 한 불입상 8구가 새겨져 있는데, 얼굴을 제외한 전체적인 모습은 서로 비슷하다 도8. 좌우대칭이 강조된 정면상의 불상 양식은 14세기 말로 추정되는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刺繡可爾陀伽來圖>의 불입상과 눈꼬리를 치켜뜬 얼굴 모습, 높은 육계, 두 발을 벌리고 연화대좌 위에서 직립한 자세 등과 일부 상통하는 면이 보이기도 한다.<sup>54</sup> 그러나 이러한 동시대의 불화나 불교조각보다는 오히려 1408년 박자청이 감역하여

48 『太宗實錄』 권2, 太宗 11년 12월 9일 乙未.

49 『太宗實錄』 권25, 太宗 13년 1월 27일 丁未.

50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4월 8일 甲辰.

51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5월 14일 庚辰.

52 『佛舍利莊嚴』(국립중앙박물관, 1991), p.90의 上右側 도판 참조.

53 『佛舍利莊嚴』, p.85의 도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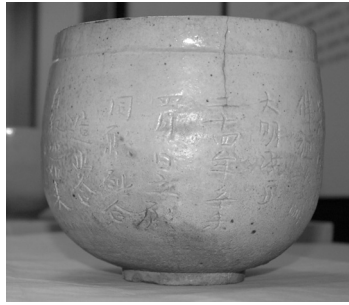
도8 도7의 세부, 합장인 불입상  
(사진: 필자)  
도9 무인석상, 15세기초,  
경기도구리시 건원릉소계  
(사진: 필자)

완성한 太祖 建元陵의 武人石像과의 양식적 친연성이 더 주목된다<sup>54</sup>. 건원릉의 무인석상과 이성계 사리기의 불상을 비교해보면 둥그스름한 양 어깨, 귀가 크고 넓적한 얼굴 모습, 양쪽 발을 벌리고 서 있는 자세, 좌우대칭의 문양표현으로 강조된 정면성 등에서 공통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 팔각탑형 사리기는 안쪽에 봉안한 라마탑형 사리기와 제작방식과 양식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트르 만들어졌다고 추정된다. 두 사리기의 제작연대는 팔각탑형 사리기의 명문에 기록된 1390년 3월경일 것이다. 한편 각 사리기의 명문에는 각각 다른 제작자의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들이 실제 제작장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조선 전기에 크게 출세한 박자청의 경우에는 이 사리기 제작의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흥미롭다.

세 번째 사리기는 굽이 없는 청동완이다<sup>55</sup>. 앞서 고찰한 라마탑형 사리기와 팔각탑형 사리기는 이 청동완 안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용기는 내면과 외면에 동심원으

<sup>54</sup> 『高麗, 영원한美-高麗佛畫特別展』(호암미술관, 1993), 圖版9 참조.



도10 청동완, 1391년,  
높이 11.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필자)  
도11 백자발, 1391년,  
높이 19.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필자)

로 가질을 친 흔적이 남아 있어서, 고려 말기의 보기 드문 기년명 방자유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정확한 재질은 과학적 분석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밝혀져야 할 과제이다.

이 완의 구연부 외면에는 黑灰(黑灰)으로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사리합의 시주자로 信堅, 妙明, 朴龍 등 세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信堅과 妙明이라는 인물은 1379년에 건립된 여주 신흥사 <普濟尊者石鐘碑>에 나오는 ‘上黨郡 李氏 妙明’, ‘上洛郡 金氏 妙明’, ‘香積堂 信堅’ 등과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옹의 문도들로 추정된다.<sup>55</sup> 한편 명문 말미의 인물인 박룡은 역시 제작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리기는 뒤에서 고찰할 ⑤ 白磁鉢 2 안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네 번째 기명은 1391년 4월에 제작된 白磁鉢 1로서 도11, 그릇의 외면에 음각의 명문이 남아 있다. 명문에는 발원자와 발원 목적, 제작연대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발원자는 월암과 송헌시중과 만여 명이다. 송헌시중은 바로 이성계를 가리키는 것이다.<sup>56</sup>

발원문 중 “미륵의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고, 三會 때에는 다시 열어서 부처를 예배하겠다”라는 내용은 고려 말기에 유행한 埋香碑의 내용과 유사하여 주목된다. 이 용기는 이제까지 사리용기로 알려져 왔으나, 그릇의 크기가 뒤에 고찰할 사리기의 外奩과 비슷해 서로 겹쳐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명문 중에는 미륵의 삼회를 기다리는 내용은 있지만 舍利를 봉안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사리봉안용기로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이 용기는 함께 발견된 백자 향로와의 관계와 명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향목을 봉안한 香盥일 것이다. 사리장엄구와 함께 공양품으로서 향목을 봉안하는 것은 고려시대 이후에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와 같이 대형의 향로와 향합을 봉안하는 예는 드물다. 이것은 명문의 내

<sup>55</sup> <보계존자석중비>의 명문에 대해서는 李智冠, 앞의 책(1997), pp.371-402 참조.

<sup>56</sup> 松軒은 이성계가 潛龍 때의 軒號로서, 이후 그의 호가 되었다. 『太祖實錄』 권3, 太祖 7년 2월 4일 辛巳.



도 12 백자발2, 1391년  
높이 17.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필자)  
도 13 백자발2의 굽 부분  
(사진: 필자)

용과 발원 목적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에 유행한 埋香 풍습과 미륵사상의 영향을 반영하여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57</sup>

마지막 명문이 있는 용기는 1391년 4월에서 5월까지 제작된 白磁鉢 2이다<sup>도12</sup>. 여기에는 굽 부분과 그릇 내면에 각각 음각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명문의 연대가 각각 달라서 주목된다. 굽 부분에는 ‘신미 4월일 방산 사기장 심룡과 비구 신관’의 이름과 같은 간단한 내용이 있고<sup>도13</sup>, 그릇 안에는 ‘금강산 비로봉 사리안유기로 시작하는 긴 명문이 있다. 그릇 안의 명문 연대는 ‘홍무 24년 신미 5월일’로 되어 있어서 굽 외면의 명문보다 1달 늦게 새겨진 것이므로, 그릇을 만들고 유약을 입히기 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별도로 새긴 것이다. 내용은 앞서 고찰한 팔각탑형 사리기의 명문과 ④ 백자발 1의 명문 내용을 섞어서 정리한 것이다. 그렇지만 구연부의 일부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명문 중 몇 글자는 없어졌으며, 유약으로 명문의 일부 글자가 덮여져 있어서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굽 부분의 명문에는 ‘방산 사기장 沈龍’이라는 도공의 이름이 등장하여 도자사에서 일찍부터 주목해 왔다. 방산은 현재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으로 추정되며, 이 지역에서는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백자를 제작했다. 2000년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행한 양구 방산 지역 도요지의 지표조사에 의하면, 방산면 장평리, 송현리, 금악리 등에서 14-15세기경의 백자편이 발견되었다. 이 백자편들이 이성계 사리기 백자발들의 태토와 유약, 번조방식 등과 서로 공통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도자사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다.<sup>58</sup>

<sup>57</sup> 보통 해안기에서 행해진 대향 의례에서는 나무를 직접 뿔에 문었기 때문에, 이 사리장엄구에서와 같이 容器에 넣어서 부장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이것이 사리장엄구의 봉안 의례에 사용된 공양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sup>58</sup>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및 朴起嬭, 「高麗 末・朝鮮 初 白磁 研究」(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pp.16-19 참조.

한편 도공의 이름에 대해서는 ‘沈意’로 읽는 견해도 있으나,<sup>59</sup> 실제 명문에서는 ‘龍’의 옛 글자체인 ‘竜’으로 쓰여 있다. 1395년 간행된 국보 250호 <李原吉開國原從功臣錄券>에는 ‘前嶺將 沈龍’이라는 인물이 확인되는데,<sup>60</sup> 이는 아마도 사리기를 만든 장인과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바로 금속기의 제작에 관여한 박자청이 태조 즉위 때에 中嶺將의 신분으로 개국원종공신이 되었던 것과도 상통하여 주목된다.

굽 부분 명문에 함께 등장하는 비구 信寬의 행적은 자세하지 않으나, 조선 초 1418년에 새겨진 <三千浦埋香岩刻碑文>의 大化主로 등장하는 승려 ‘信寬’과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sup>61</sup>

그릇 안쪽에 쓰인 명문에는 비로봉에 사리를 봉안하고 미륵의 삼회를 기다린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륵하생신앙을 바탕으로 사리봉안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발원자는 월암과 이성계 및 여러 명의 상류층 여성들이지만, 여성들의 구체적 신원은 확인하기 어렵다. ‘사리안유기라는 명문이 있고 크기가 비교적 큰 점으로 볼 때, 이 그릇은 사리장엄구의 가장 바깥쪽 용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명문이 있는 5점의 사리장엄구를 살펴보았다. 이들 명문 용기는 모두 제작연대와 제작자, 발원자와 발원목적이 확인되기 때문에,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높고 중요한 작품들이다. 명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는 개국공신이 여러 명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리장엄구의 제작이 이성계의 신왕조 창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명문 백자발 2점은 현재까지 알려진 기년명 경질 백자 중에서 가장 이른 예이며, 사리장엄구로 사용된 기년명 백자 중에서도 가장 이른 예로서 매우 중요하다.

## 2. 無銘容器

명문이 쓰여 있지 않은 4점의 사리장엄구는 白磁鉢 2점, 白磁香爐 1점, 그리고 銀製耳搔 1점 등이다 표2 참조. 유일한 금속제인 銀製耳搔는 얇고 긴 은판을 두드려 만든 것으로, 사리를 옮길 때 사용했던 도구로 추정된다.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백자발(⑥, ⑦)은 앞서 고찰한 1391년 제작의 백자발 두 점(④, ⑤)

<sup>59</sup> 위의 각주 참조.

<sup>60</sup> 朴盛鍾, 「李原吉開國原從功臣錄券에 수록된 功臣들의 姓名 분석」, 『民族文化論叢』 30(2004), p.220.

<sup>61</sup> <삼천포매향암각비문>에 대해서는 蔡雄錫, 앞의 논문(2006. 1), pp.238-241 참조.

과 각각 세트를 이루면서 흙의 뚜껑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두 개의 그릇을 마주 포개어 흙을 구성하는 사리장엄구 형식은 도자기를 사리용기로 쓰면서 나타난다. 이러한 비교적 이른 예로는 11세기경의 영암 청풍사지 오층석탑 출토 청자 사리함이 있다<sup>14</sup>.

白磁香爐는 고려시대에 유행한 향완 형식을 따르면서도 나팔형의 器臺 대신에 굽이 달린 독특한 형식이다<sup>15</sup>. 이러한 형식은 12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淸州 思惱寺 출토 금속제 향완의 형식에서 뚜껑이 없어지고 전이 달린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sup>62</sup>

이상에서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의 세트 구성 및 각각의 양식에 대해서 고찰했다. 이 사리장엄구 세트는 크게 사리를 봉안하는 장엄구 세트와 공양구로 나누어진다. 사리 봉안에 사용된 장엄구는 은제도금라마탑형 사리기-은제도금팔각탑형 사리기-청동완-백자발과 뚜껑 등 4중 용기이고, 공양구는 사리 이운에 사용하는 은제이소와 향 공양을 위한 백자 향로 및 향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이 사리장엄구의 의의에 대해서 고찰하겠다.

표 2 無銘容器 目錄

번호	이름(유물번호)	크기
⑥	白磁鉢 3 (본관13077)	높이 13.6cm
⑦	白磁鉢 4 (본관13079)	높이 9.8cm
⑧	白磁香爐 (본관13080)	높이 12.3cm
⑨	銀製耳搖 (본관13074)	길이 15.5cm

#### IV. 이성계 발원 불사리장엄구의 의의

정확한 제작연대와 제작자, 발원자와 발원목적이 밝혀진 이 사리장엄구 세트는 이성계



도14 청자사리함, 11세기, 높이 8.5cm, 전남 영암 청풍사지 오층석탑 출토 전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불사리장엄』, p.76)

도15 백자향로, 1391년경, 높이 12.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필자)

<sup>62</sup> 국립청주박물관, 『고려공예전』(국립청주박물관, 1999), 도판 25-32 참조.

가 조선을 건국하기 직전에 만들어진 중요한 기준작으로서, 조형적 측면과 사상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 1. 조형적 측면에서의 의의

이 사리장엄구는 전반적으로 고려 후기 미술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제작기법과 도상 등에서 조선 초기의 신양식을 예고한 작품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조선 초기 공예 양식과의 관련성은 제작자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성계 사리기의 명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서, 금속기 제작과 관련된 박자청과 백자 제작 장인인 심룡은 개국원종공신으로 임명되었으며, 박자청은 태종 연간까지 공조판서로서 활동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리기의 제작에 참여했던 장인들은 조선 초기에도 계속 주요 생산직에서 활동하며 조선 초기 공예품 제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正史에서는 이러한 장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거의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리장엄구의 의의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

한편 이 사리장엄구의 제작기법에 있어서 가장 새롭고 중요한 점은 外奩과 공양구로서 새로운 硬質白磁가 사용된 것이다. 푸른빛 도는 유약에 검은색 반점이 드문드문 보이는 백색 태토의 경질백자는 그다지 뛰어난 질은 아니지만, 고려시대 백자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조선시대 경질백자의 선행 양식이 된다. 강원도 양구지역에서 이러한 새로운 요업이 발달하게 된 원인은 백토의 풍부함이라는 기본적인 여건때문이기도 하지만, 금강산과 가까운 길목에 있으며 동북방 출신인 이성계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지리적 요건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속공예적 측면에서는 고려시대의 발달된 타출기법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고려시대 금속공예품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부분도금기법의 사용이나 탐형 사리장엄구의 상륜부 제작에서 보여주는 뛰어난 타출기법 등은 고려 후기의 금속공예 양식과는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공예 양식은 이후 조선 전기의 왕실 공예에 그대로 계승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작품들은 조선 전기의 금속공예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조선 전기 금속공예품의 수준을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된다.

비교할 만한 조선 전기의 작품이 없는 금속공예품의 경우에도, 고려시대에는 드물게 보이는 부분도금기법이나 탐형사리장엄구의 상륜부제작에 보이는 뛰어난 타출기법 등은 조선 전기의 왕실공예에 그대로 계승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는 탑형사리장엄구의 표면에 장식된 합장인 불상의 도상 및 양식 문제이다. 고려시대까지의 사리장엄구 중에는 사리기의 표면에 四方佛 이외의 불상이 새겨진 경우가 많지 않다. 중국의 경우에는 遼代 사리장엄구 중에서 측면상의 합장한 佛立像 7구가 구름을 배경으로 새겨진 法舍利小塔이 내몽골 慶州白塔 天宮에서 다수 출토된 바 있는데도<sup>63</sup>, 불상 양식이나 숫자가 이성계 사리장엄구와는 차이가 있다.<sup>64</sup> 이성계 사리기의 외면의 불입상은 독특한 정면상으로 각각 4구, 8구가 표현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四方佛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모두 같은 手印과 자세를 한 점으로 볼 때 四方佛, 혹은 八方佛과 같은 방위 개념의 불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오히려 遼代 법사리장엄구에 보이는 합장인 불입상이나 송대 불화 등에 보이는 합장인 불상의 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 16 彩繪七佛法舍利塔, 遼 1049년, 높이 23cm, 中國 巴林右旗博物館 소장 (『契丹王朝』, p. 332)

보통 주존으로 모셔지는 불상은 합장을 하지 않는다. 합장한 불상이 불교미술에 등장하는 것은 11세기 이후부터로, 대부분 주존을 에워싸는 시방계불로서 표현된 것이다. 일본 知恩院 소장의 南宋代 〈可彌陀淨土圖〉에서는 본존의 머리 위에서 있는 시방계불 중에서 합장한 부처를 4명 이상 찾을 수 있다<sup>17</sup>. 또한 金代 1143년에 개수한 朔州 崇福寺의 벽화에서도 주존 양쪽의 시방불들이 모두 합장하고 구름 위에 앉아 있다.<sup>65</sup> 고려에서도 1350년 제작된 〈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行願品變相

<sup>63</sup> 慶州白塔 天宮 출토 사리장엄구 및 공양구 일괄품은 遼 興宗年間인 1049년에 봉안되었으며, 대부분 내몽골 巴林右旗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七佛이 새겨진 사리장엄구는 대부분 무구정경을 봉안한 법사리탑으로 모두 100여 점 이상 출토되었다. 德新·張漢君·韓仁信, 「內蒙古巴林右旗慶州白塔發現遼代佛教文物」, 『文物』(1994. 12), pp. 4-33; 中國歷史博物館·內蒙古自治區文化廳 編, 『契丹王朝-內蒙古遼代文物精華』(北京: 中國藏學出版社, 2002), pp. 322-343; 周貝美, 「遼 興宗年間(1031-1055)의 佛舍利莊嚴 研究」, 『中國史研究』 35(2005. 4), pp. 209-213.

<sup>64</sup> 이러한 遼代 사리장엄구가 이성계 사리장엄구의 기원이 된다고 보는 견해는 鄭恩雨, 앞의 논문, pp. 313-314 참조.

<sup>65</sup> 品丰·蘇慶 編, 『應縣佛宮寺壁畫·朔州崇福寺壁畫』 歷代寺觀壁畫藝術 第1輯(重慶: 重慶出版社, 2001), 朔州 崇福寺의 圖 3, 4, 29 등 참조.



도17 阿彌陀淨土圖, 南宋 1180년, 絹本著色,  
높이 150cm, 日本 知恩院 소장  
(『東アジアの佛たち』, 圖142)

圖> 중에는 보현보살의 화불이자 공양불로서 합장한 佛坐像이 등장한다.<sup>66</sup> 즉 합장한 불상은 주존을 경배하기 위한 보조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 사리기의 표면에 장엄된 총 12구의 불입상은 佛舍利를 호위 및 경배하는 시방계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양 발을 벌리고 정면으로 서 있는 이 불상들은 마치 호위 무사를 보는 듯한데, 이러한 양식은 삼사분관으로 많이 그려지는 전형적인 고려 불화 양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정면관의 강조는 이후 조선 초기 불화나 조각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특색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로 연결되는 새로운 양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하고 새로운 제작기법을 사용하면서 독특한 도상을 보여주는 이 사리장엄구 세트는 고려 말의 불교미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새로운 조선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식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이 사리장엄구 세트의 양식은 문헌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조선시대의 불교미술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sup>67</sup>

## 2. 사상적 측면에서의 의의

이 사리장엄구는 이성계가 불교적 관점에서 건국을 준비하는 과정에 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건국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불교적 帝王觀이 표출된 조형물로서 매우 중요하다.

<sup>66</sup> 『高麗, 영원한 美-高麗佛畫特別展』, 圖版 54 참조.

<sup>67</sup> 이와 관련하여 이성계 사리장엄구 중 라마탑형 사리기와 팔각탑형 사리기가 현존하지 않는 조선 전기의 흥천사 사리전의 양식과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찍이 발표된 바 있어 주목된다. 康炳喜, 『興天寺 舍利殿과 石塔에 관한 연구-朝鮮初期 漢城의 塔婆』, 『講坐 美術史』19(2002. 12), pp.248-257.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륵하생신앙과의 관련성이다. 이 사리기 세트의 명문에는 미륵을 기다리고 다시 열어서 예배한다는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 사리장엄구가 당시 유행하던 미륵하생신앙에 근거를 두고 제작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미륵하생신앙은 미륵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새로운 세상을 희구하는 열망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리장엄구는 당시 유행하던 민중적 미륵신앙을 전통적인 불사리장엄과 결합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발원자인 조선 태조 이성계의 건국의회와 염원을 담은 것이다. 특히 당시 가장 유명한 불교 성지 금강산에 이를 봉안한 것은 이성계가 건국 이전부터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건국 과정에서 고려 태조의 금강산 설화나 미륵하생신앙에 등장하는 전륜성왕사상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명문 중의 인물들과 이성계와 관계이다. 홍영통, 황희석, 박자청 등은 이제까지 문헌사에서는 건국 과정의 주요 인물로 인식되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들은 개국공신으로 포상을 받았으며 조선 초까지 활동했던 건국 과정의 주요 인물이다. 이 사리기의 명문을 통해서 이들과 건국 이전 이성계와의 친분관계가 밝혀짐으로써, 이후 조선시대의 그들의 행적은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이 사리기의 명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성리학계 문인이 편찬한 사료에는 기록되지 않은 잠저시절의 이성계와 개인적 친분관계를 가진 고려의 구세력이자 불교신도들이다. 앞으로 이들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조선 건국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의 구성 및 양식, 시대배경과 의의 등을 고찰하였다. 이제까지 이 사리장엄구 세트에 대한 종합적인 소개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기초적인 자료의 검토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사리장엄구 일괄품은 조선 건국을 앞둔 이성계가 새 세상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제작한 것으로, 불교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성격을 가진 조형물이다. 특히 이제까지의 사료에서는 건국과정의 공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조선 개국공신들의 이름이 명문 중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이 사리장엄구의 제작이 단순히 신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 건국과 관련된 불교적 행위였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正史는 유교적 측면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에, 이 사리장엄구의 제작이나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는 매우 단편적으로만 기술하였다.

그러나 건국 직전에 미륵을 기다리면서 불사리 봉안을 했던 이성계는 스스로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 건국에 참여한 인물 중에도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선 건국 이후 불교 세력은 점차 약화되긴 했지만 조선 초기까지 왕실의 사리신앙과 佛事는 계속되었다. 이성계 발원 불사리장엄구는 바로 正史의 관점에서 는 누락된 조선 창건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형물이자 금석문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앞으로 이 사리기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명문 판독과 해석, 그리고 과학적 조사에 의한 제작기법의 연구 및 실측자료 공개, 발원자들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미술사학자뿐만 아니라 금석문 연구자, 역사학자, 불교학자가 함께 진행해야 할 방대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주제어(key words) \_\_ 조선건국(the foundation of the Joseon dynasty), 태조(King Taejo), 미륵(Maitreya), 금속 공예(metal crafts), 백자(white porcelain), 사리(sarira)

▣ 투고일 2008년 1월 23일 | 심사일 2008년 1월 31일 | 심사완료일 2008년 2월 20일 ▣

부록: 李成桂 發願 佛舍利莊嚴具의 명문<sup>68</sup>

① 銀鍍金喇嘛塔形舍利器의 명문<sup>69</sup>

銀奮忠定難  
匡復變理  
佐命功臣  
壁上三韓  
三重大匡  
守門下侍中  
李成桂  
三韓國大  
夫人康氏  
勿其氏

② 銀鍍金八角塔形舍利器<sup>70</sup>

a. 표면에 중서 음각  
庚午三月日

造成舍利

<sup>68</sup> 이 명문 내용은 기존의 판독문을 보충하여 필자가 새로 작성한 것이다. 자전에 나오지 않는 글자는 최대한 원 명문의 글자에 가깝게 그려 넣었으며, 간자체로 적힌 것은 그대로 표기하였다. 명문 판독에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주로 처리하였으나 아직까지 명문의 판독이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명문 판독과 해석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자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 한다. 명문 판독에 도움을 주신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의 고경희 부장님, 서성호 선생님, 삼성미술관 학예실의 송은석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sup>69</sup> 이 사리장엄구의 명문은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第五版(一志社, 1994), pp.196-197 및 秦弘燮 『韓國美術史資料集成 (1)』(一志社, 1987), p.586; 許興植 編著 『韓國金石全文 中世下』(亞細亞文化社, 1984), pp.1243-1244 참조. 이 명문의 판독에는 별다른異見이 없다.

<sup>70</sup> 이 명문은 황수영, 앞의 책, pp.575-576 및 『불사리장엄』, pp.252-253에 수록되었다. 황수영은 중서와 횡서로 쓰인 명문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판독하였으나, 『불사리장엄』에서는 구별하여 판독하였으며, 필자도 중서와 횡서의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여기에서는 나누어 기술한다. 한편 필자형 통의 각 면에는 평균 3행씩 쓰여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면에만 2행씩 기술되어 있다. 각 면의 구별은 필자의 임의대로 ‘, ’ 기호를 부여하였다.

塔奉持

納子月菴

施主

加伊氏

安月<sup>71</sup>

同知密直

黃希<sup>72</sup>

朴氏福壽<sup>73</sup>

樂良郡夫人

妙禪

康澤<sup>74</sup>

江陽郡夫人

李氏妙情

勝田寶德

樂安郡夫人

金<sup>75</sup>氏

孝人希寬

植志 信南

造<sup>76</sup> 羅得富

李氏 奴<sup>77</sup> 童

朴子青

71 加伊氏와 安月의 이름은 다른 글자보다 작게 쓰여 있다.

72 이 글자는 釋의 옛 글자체이다.

73 이 네 글자는 역시 작은 글씨로 쓰여 있다.

74 황수영은 澤으로 읽고, 『불사리장엄』에서는 渾으로 읽었다. 여기에서는 澤으로 판독한다.

75 황수영은 尙으로 읽음.

76 『불사리장엄』에서는 造'자 앞에 '一'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명문에는 '一'자가 없다. 이후 나오는 나득부 이하 박자청까지는 모두 만든 사람의 인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나득부, 이씨, □룡, 박자청 4명으로 보아야 할지, 혹은 나득부, 이씨 □룡, 박자청 등 3명으로 보아야 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77 황수영은 奴로 읽음.

b. 표면에 횡서 음각

領三司事, 洪永通, 貞順宅主, 黃氏<sup>78</sup> 興海郡夫人, 裴氏<sup>叙碑</sup>,

③ 靑銅碗<sup>9</sup>

洪武二十四年辛未二月日造舍利盒施主信堅妙明<sup>庵</sup>

④ 白磁鉢<sup>180</sup>

大明洪武

二十四年辛未

四月日立願

同願<sup>抄</sup><sup>81</sup>

造此<sup>谷</sup><sup>82</sup>

自<sup>叙</sup>又<sup>述</sup>來

入<sup>減</sup>徑二千余

年大明洪武

隱月菴<sup>与</sup><sup>83</sup>

松軒侍中

□<sup>84</sup>余万人

同<sup>發</sup>誓<sup>85</sup>願

<sup>78</sup> 이후 한 면에는 횡서 명문이 없다. 한 칸 건너서 흥해군부인이 등장한다.

<sup>79</sup> 이 명문은 『불사리장엄』, p.253 (其3) 항목에 처음으로 수록되었다.

<sup>80</sup> 이 백자발의 명문은 진홍섭, 앞의 책, p.626, 〈白磁陰刻鉢〉 항목; 『世界陶磁全集 18 高麗』, p. 250; 『불사리장엄』, p.253 (其3) 항목 등에 수록되어 있는데, 판독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sup>81</sup> 원래 새겨진 글자의 형태는 ‘人’자 아래에 心자가 씌여진 글자로서, 진홍섭과 『불사리장엄』에서는 모두 ‘슴’으로 읽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슴’자와는 다르고, 앞 글자인 ‘抄’자와의 관계로 보아 ‘抄’이라는 인명일 가능성이 있다.

<sup>82</sup> 이 글자는 ‘슴’자의 이체로 추정된다. 이제까지 ‘此’의 두 글자는 진홍섭과 『불사리장엄』에서는 ‘幽谷’으로 판독했으나 재고의 여지가 있다. 원래 글자의 형태는 ‘人’번 대신 ‘火’번 아래에 씌여진 ‘슴’자로서 ‘谷’으로 보기는 어렵다.

<sup>83</sup> ‘뿔’자의 간자체이다.

<sup>84</sup> 이 부분은 그것이 깨졌다가 복원된 곳이라서 원래 글자의 유무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공간으로 볼 때 한 글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謨<sup>86</sup>藏金剛山  
 直待彌勒世  
 不建<sup>87</sup>三會時  
 重開瞻禮佛  
 此願堅固  
 佛祖證明<sup>88</sup>

⑤ 白磁鉢<sup>289</sup>

a. 器面 내측

金剛山毘盧峯舍利安遊記<sup>90</sup>  
 自穉尊入滅徑二千四百  
 余年大明洪武二十四辛未  
 五月日月菴與今侍中  
 李成桂萬人同發誓願  
 謨<sup>91</sup>藏金剛山侍<sup>2</sup>  
 彌勒出世奉以示人  
 助場眞化同成  
 佛道比願堅固  
 佛祖證明

<sup>85</sup> 『불사리장엄』에서는 ‘뿔 차’가 누락되었다.

<sup>86</sup> 『불사리장엄』에서는 ‘謨’로 되어 있으며, 박기희는 ‘謹’으로 읽었다(박기희, 앞의 글, p.43). 진홍섭은 □로 표기했다.

<sup>87</sup> 진홍섭은 ‘建’, 『불사리장엄』에는 ‘遠’으로 읽음.

<sup>88</sup> 『불사리장엄』에서는 ‘佛祖證明’의 네 글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진홍섭에는 기록되어 있음. 실제 명문에도 이 네 글자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sup>89</sup> 이 사리기의 명문은 진홍섭 앞의 책, pp.626-627, 〈白磁鉢〉항목 및 『불사리장엄』, p.253(其2) 참조.

<sup>90</sup> 이 명문은 그릇 내면에 쓰여 있는데, 맨 앞줄의 ‘금강산...’으로 시작하는 행만 안쪽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서 이 행이 시작임을 알 수 있다. 명문은 음각이며, 위에 두터운 유약이 입혀져 있어서 첫 글자인 ‘술’자는 잘 보이지 않는다.

<sup>91</sup> 『불사리장엄』에서는 ‘謨’로 되어 있으며, 박기희는 ‘謹’으로 읽었다. 이대 방산 보고서에서는 ‘供’으로 읽었으며, 진홍섭은 □로 표기하였다.

<sup>92</sup> 명문에는 ‘侍’로 쓰여 있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아마도 ‘뿔 차’의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

辛未五月日誌  
 同發願野納月菴  
 同願施主門下侍中李成桂  
 同願三韓國大夫人康氏  
 同願樂浪郡夫人金氏妙善<sup>93</sup>  
 同願江陽郡夫人李氏妙情  
 同願樂安郡夫人金氏  
 同願興海郡夫人裴氏  
 同發願余數多□<sup>94</sup>  
 不緣<sup>95</sup>待彌勒三會□□<sup>96</sup>  
 瞻禮同成正覺

b. 굽주위

辛未四月日防山磨器匠沈龜<sup>97</sup> 同發願比丘信寬

<sup>93</sup> 은제도금팔각탑형 사리기에서는 ‘낙랑군부인 妙禪’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아마도 같은 인물로 보인다.  
<sup>94</sup> 진홍섭과 『世界陶磁全集 18 高麗』에서는 ‘文’자로 읽었고 『불사리장엄』에서는 ‘人’으로 읽었는데, 현재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정확하지는 않다.  
<sup>95</sup> 진홍섭은 緣’으로 읽었으며, 『불사리장엄』에서는 ‘緣’으로 읽었다. 뜻으로 볼 때, 緣’일 가능성이 크다.  
<sup>96</sup> 이상 두 글자는 『불사리장엄』과 진홍섭에서는 ‘重□’로 표기하였다. 이 글자가 쓰인 부분은 원래부터 파손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글자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깨진 상태로 볼 때 몇 글자가 더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백자발1〉의 명문과 비교해볼 때, ‘重開’의 두 글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sup>97</sup> 『楊口 方山の陶窯址 地表調査報告書』에서는 이 글자를 ‘意’로 읽었으나(p.33), 원래 글자는 ‘籠’의 옛 글자이다. 같은 글자가 은제도금팔각탑형 사리기의 명문, 동계발의 명문, 〈사천대항비〉 등에도 보인다.

이 논문은 조선의 태조인 이성계가 즉위 전에 발원하여 봉헌한 불사리장엄구 일괄품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이다. 이 사리장엄구 일괄은 1932년 금강산 월출봉의 한 석함 안에서 발굴되었으며,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사리장엄구 일괄품은 모두 9점으로, 동계발 1점, 銀器 3점, 백자 5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몇몇 용기에는 긴 명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명문 중에는 제작연대, 발원자, 그리고 봉헌 목적 등이 나타나 있어서 주목된다. 명문에 의하면 이 사리장엄구는 이성계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조선의 건국 직전인 1390년에서 1391년 사이에 미륵을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발원된 것이다. 즉 이 사리장엄은 이성계의 종교적 신실함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사리장엄구는 2개의 탐형 사리장엄구와 동계발, 그리고 백자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쪽에 봉안된 사리장엄구는 작은 라마탐형 사리장엄구로서, 은으로 만들어졌고 부분적으로 도금되어 있다. 라마탐형 사리장엄구 안에는 유리로 만든 원통이 있는데, 사리는 이 곳에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라마탐형 사리장엄구는 팔각탐형 사리장엄구 안에 놓여져 있었는데, 팔각탐형 사리장엄구 역시 은으로 만들고 부분적으로 도금한 것으로, 일부가 부식되어 있다. 팔각탐형 사리장엄구는 다시 동계발 안에 놓여지고, 이것들은 다시 백자합 안에 봉안된 상태로 봉안되어 있었다. 각각의 용기들에는 각각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명문의 내용은 일부 공통된 점도 있긴 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이 사리장엄구의 주요 발원자는 이성계와 그의 두 번째 부인인 강씨부인이다. 또다른 발원자로 등장하는 인물로는 승려 월암과 황희석, 홍영통 등을 비롯하여 여러 인물들이 등장한다. 승려 월암의 행적은 자세하지 않으나, 태조의 초상화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일찍부터 태조와 절친한 인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황희석과 홍영통은 조선개국공신녹권을 받았던 인물로서 주목된다. 한편 명문 중에는 사리기의 제작에 관여했던 여러 인물들의 명칭도 보인다. 백자발의 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심룡은 강원도 방산 도요지에서 활동했던 陶工으로 추정된다. 또한 팔각탐형 사리장엄구에 이름이 등장하는 박자청은 조선 초기의 유명한 건축가이며 공조판서를 지냈던 인물로서 주목된다. 심룡과 박자청도 역시 조선개국공신녹권을 받았던 인물들이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사리장엄구의 제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들로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개국공신으로서 포상받았다고 추정된다.

한편 명문 중에는 이성계와 그의 추종자들이 사리장엄의 공덕으로서, 미륵을 만나기를 기원하고 미륵의 새 세상을 건설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나온다. 한편 이러한 명문의 내용과 함께 백자 향합과 백자 향로가 이 사리장엄구와 함께 봉안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 발원자들이 미륵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상, 혹은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기를 바랐던 것임을 뜻한다. 고려 말기에는 고달픈 민중들 사이에서 대항 의례가 크게 유행했다. 대항 의례도 역시 미륵에 의해서 세워질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것으로서, 역시 미륵신앙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금강산에서 행해진 이 사리장엄은 미륵신앙과 민중의 염원을 따라서 이성계와 그의 추종자들이 새 세로운 왕조의 준비를 위한 종교적이면서도 동시에 정치적인 상징물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성계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으며, 그의 추종자 중에도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 상당수 있었다. 비록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훨씬 중요한 사상이었으며, 조선의 건국에 있어서 불교적 행위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선 초기까지 불교는 역시 중요한 사상 중의 하나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성계 발원 불사리장엄구는 바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조선 건국에 있어서의 불교와 불교도들의 역할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Abstract

# A Study of Buddhist Reliquaries Donated by Yi Seong-gye

**Joo Kyeongmi\***

This paper is the first comprehensive research on Buddhist reliquaries donated by Yi Seong-gye (李成桂), who became King Taejo in Joseon Dynasty. The reliquaries, now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ere found inside a stone casket at Wolchul-bong (月出峰) of Mt. Geumgang in 1932. They comprise a bronze bowl, three silver objects, and five white porcelain vessels. Some of them have long inscriptions that record the date, donors, and purpose of the installation. According to the inscriptions, they were dedicated and installed by Yi Seong-gye and his retinues, who wished to meet Maitreya, around 1390–1391, just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Joseon dynasty. This suggests that this relic veneration was done not only for Yi Seong-Gye's religious zeal but also for his political aspiration of establishing a new dynasty.

This set of reliquaries consists of two silver caskets and one bronze bowl and one white porcelain bowl with a lid. The inner casket in the shape of a miniature Tibetan-style stupa is made of silver and partly gilded. Inside holds a glass cylinder where the sariras were originally enshrined. The outer casket in an octagonal pagoda is also made of silver and partly gilded, and inside, it contains the Tibetan stupa-shaped casket. The outer casket would be placed in a bronze bowl and then put inside a large white porcelain bowl with a lid. All of the caskets and bowls

---

\* Research Professor, Pukyong National University

have dedicatory inscriptions ; although differing in dates and the name of some donors, they share similarities, especially in main donors .

The prominent donors are Yi Seong-gye and his second wife Lady Kang (康氏夫人). The others include a monk, Wol-am (月菴) and two laymen, Hwang Hui-seok (黃希釋) and Hong Yeong-tong (洪永通). Wol-am's biography is not recorded in history, but he is known as the owner of a portrait of King Taejo and one of his closest associates. Hwang Hui-seok and Hong Yeong-tong were granted with Royal Certificate Conferring the Title of the Founding Officer of the Joseon dynasty (開國原從功臣錄券). In the inscriptions of the caskets, there are also the names of people who were involved with the designing and making of the reliquaries. Sim Ryong (沈龍), whose name is inscribed on the bottom of the porcelain vessel, was a potter who made a new style of white porcelain at the Bangsan (防山) kiln in Gangwon-do. Pak Ja-cheong (朴子青), whose name is inscribed on the octagonal pagoda-shaped casket, was a famous architect and later became the minister of the Board of Public Works (工曹). Sim Ryong and Pak Ja-cheong were also granted with the Royal Certificate Conferring the Title of the Founding Officer of the Joseon dynasty. They possibly took part in the production of the reliquaries as designers or as makers since they were rewarded by Yi Seong-Gye after the foundation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inscriptions, Yi Seong-Gye and his retinues express their wish to meet Maitreya and create a new world of Maitreya by merits accumulated through their faithful relic veneration. This indicates that the donators had a devout faith in Maitreya and aspired for the opening of a new world or a new kingdom. A white porcelain incense burner and an incense casket were also deposited together in the reliquaries. In the late Goryeo period, the practice of incense burial (埋香) prevailed among common people. The practice of incense burial was closely related to the anticipation of a new world to be founded by Maitreya. Therefore, the relic dedication at Mt. Geumgang can be thought as a religious and political symbol for the preparation of a new dynasty by Yi Seong-Gye adhering to the belief of Maitreya and the hope of the people.

Yi Seong-Gye himself was a faithful Buddhist, and so were many of his retinues. Although Confucianism was predominant in the Joseon dynasty and records of Buddhist activities are scarce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new dynasty, Buddhism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deologies in the period. The reliquaries donated by Yi Seong-Gye present the important but yet to have to be known role of Buddhism and its adherents in the early Joseon dynasty.